

# 防火有感

金 炳 暁

〈本協會・防研部次長〉

## 알쏭달쏭한 法規

10년전 이직업에 발을 들여놓을때는 방화관계 법규를 버스간에서까지 읽어가며 열심이었다. 학교에 다닐때 건축법은 선택과목이라서 학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사회에 나와 이직업을 잡기전까지는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과학을 하는 직업이라서 목에 힘이나 주는 관료적인 사람들이 주물러 만든 법은 아예 거들떠 볼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10년동안 법을 뒤치며 밥을 먹으면서도 법에 대한 자신이 조금도 서지 않는것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같다. 기술법이니까 원류를 거슬러올라가 근원을 찾으면 이제껏 몰라서 답답했던 것들이 확 풀리려니하고 단순한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생각은 같다. 왜 기술적으로 명확한 것이 법규에서는 이렇게 벗어나야했는가 앞으로 언젠가는 다시 제 제도에 들어가야 정상일것이고, 방화 관계법의 원류를 현실에서 찾는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행관계법의 현재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보람된 작업이라는 것을 요즘에 와서 느끼기 시작했다. 알쏭달쏭한 현실이 알쏭달쏭한 법을 낳는 것인지도 모른다.

## 法規 解説이 없는 法規

소방법, 건축방화법규는 기술법이고 상당히

어렵다고들 한다. 요즘 같이 출판물 홍수 시대에 웬만한 것은 모두 책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방화관계 법규를 기술적으로 해설해놓은 책은 우리나라 어느 책방을 둘러봐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 알쏭달쏭한 법조항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의 말이 곧 법이될 수 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 몇년전에 하도 답답해서 법을 주관하는 기관공무원에게 법규해설집을 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요청을 하였더니 하겠다고 했는데 그공무원은 얼마안있다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버렸다. 지금도 누군가가 해설집을 출판한다면 본전을 뽑는 것은 물론 잘하면 수지도 맞을 텐데 아직도 알쏭달쏭한 법만이 독야 청청하고 있다. 가끔 이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소리는 듣고 있지만 법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 급하다는 얘기인 것 같다.

## 日本을 따라야 하는 現實

나는 이직업을 택한지 얼마 안있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건축법소방법의 어떤 조문 그것도 대부분이 일본어 번역판이었다는 것이었다. 외국어 원본을 보는 것이 번역한 것을 보는 것보다 이해가 빠른 경우가 많아 나는 항상 일본의 건축법소방법을 가까이 두고 있다. 적어도 나는 일본이 미운다는 것을 수십년동안 배우고 들어 왔는데 막상 실무에 접한 지금 일본법규가 없으면 불안하다. 왜 우리나라의 방화

관계 법규는 일본 것을 베꼈을가 우리고유한 법규를 만들 수 없었을가 防火區劃, 火災速報設備, 連結散水設備, 隔壁等 법규에 나오는 대부분의用語가 모두 日本것들이다. 예를들어 보통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문지상에서도 防火區劃을 防火區域이라고 하면 웬지 눈에 설고 신문이 無識해서 防火區劃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쯤되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른다. 일본 용어를 따다가 자꾸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일단은 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 마음먹은 대로 안되는 防火關係 法改善

우연한 기회에 법개정작업에 끼었던때가 있다 10여명의 개정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그 열의가 대단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열의만 가지고 좋은 법이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이틀에 좋은 제도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껏 해놓은 일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현실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도 알았다. 진실로 국민의 마음속에 밀착되는 제도나 법규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결과는 보잘 것없는 것이었고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제는 방화관련 법규가 왜 변질나게 자꾸 바뀌는가도 이해하게 되었다. 법이 자주 바뀌는 것 보다는 방화의 현실을 옳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투자의 가치를 평가할 때 결과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소방관계자가 우리나라의 소방투입예산에 비하여 화재 피해액이 더적기 때문에 국가 소방예산을 보다 적게 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다. 그러나 內務部가 集計하는 전국 화재 피해는 화재 보험회사의 화재피해액보다 적은 것이 통례로 나타나는 웃지못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화재

피해통제가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화재대책을 세우는 가장 기본 자료가 된다는 것을 하루 빨리 인식했으면 좋겠다.

### 고맙지 않은 消防檢査

소방의 실체는 예방에 있다고 한다. 불을 예방하면 손해를 불필요가 없다는 이론인것 같다. 마치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위하여는 전쟁의 요인을 사전에 없애면 된다는 이론과 같다고 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소방은 불끄는데 출동하든가 아니면 건물(소방대상물)을 찾아가 예방활동을 한다. 불이 났을때 소방서가 없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날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소방관이 건물을 찾아가 현재와 같은 예방활동을 벌이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고 차라리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소방에서 예방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방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구미 선진 국에서는 국민에게 친절한 예방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 건물에 출입하는 私服消防官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學歷은 社會에서 높은 知識水準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또한 소방검사결과 행정명령은 소방서장이 하지 않고 경찰등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될 수 있으면 지역사회에 좋은 인상을 부각시키려고 한다고 한다.

서울의 경우 120명의 정예 소방공무원을 선발하여 소방검사를 담당케한 적도 있었고,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을 소방검사로 대체해보기도 하였다. 소방검사의 회수를 줄이기 위하여 소방법을 계속 개정하였으나 건물에 출입하는 소방관의 수는 여전하다는 건물주들의 불평이다. 소방의 개선은 명문화된 제도가 아니라 국민각자의 의식 개조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은 소방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인 것 같다.

## 低質 消防用品의 氾濫

얼마전 국내 유수의 석유회사 안전담당자를 만났는데 좀안된 얘기지만 자기 공장에서는 국산 소화기는 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공장은 조그만 불이라도 정확하게 꺼지지 않으면 큰 일이기 때문에 잘안터지는 국산소화기는 쓸수가 없다고 했다.

이와 비슷한 얘기는 얼마든지 있다. 자동화재탐지기가 불도 안났는데 자꾸 울려 아예 스위치를 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소방용품은 KS와 같이 국가 검정규격이 정하여져 있으며 국가에서 공인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다.

국가 검정기관에 있는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시험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많은 제품에 검사증을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보면 뭘지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다. 검사기관은 공정한 검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검정수입과는 무관한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마치학원이 수업료수입에만 의존한 결과 학교가 장사꾼이라는 말이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육교한두개 건설하고 까부시는 돈이면 신뢰성 있는 소화기가 나올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든다. 남이보는 곳에서만 잘하고 남이 안보는 곳에서는 못하는 것이 없고서야 문화국민이 될 수는 없을 텐데 소방검정과 같은 보람있는 곳에 투자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소방용품 제조 메이커나 공사업자에게 방화안내자료를 보내적이 있었다. 분명히 우편 번호번지까지 정확한 곳으로 입수한 것이없는 데어 찌된 영문인지 수취인 불명으로 태반이 돌아왔다. 어느 소방공무원 말로는 몇개 메이커를 빼고는 공장을 가보자고하면 이리 저리 핑계를 대고 뒷공무니를 뺀다고 한다. 남의 사무실에 전화틀 빌려 혼자서 사장 급사 노릇하는 업체가 수

두룩하다는 귀뜸이고 보면 다른 직업으로 바꿀걸 그랬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친다.

## 수천명의 떠돌이 消防設備 資格者

소방설비의 시공, 제조, 관리등을 위하여 소방설비기사 제도가 있다. 10년가까이 1년에 1~2회정도의 시험을 치뤄 수천명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 기술자격자가 꼭 그자격을 가지고 취업의 도구로 쓰지 않아도 나무랄 수는 없으나 소방설비 자격자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수요처가 많을 것이고 생각되는 방화관리자는 소방설비자격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기술이외의 업무가 많아 수요처가 되지 못하고 있고 소방용품, 설비등의 시공·제조 업체에서는 가뜩이나 영세한데 자격증만 가진 경험없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자격제도 시행초기에는 이들업체는 자격증만을 사는등 변칙적으로 영업하다가 제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6.25이후 우리는 많은 사립대학교가 생겨났고 입학 졸업이 지금처럼 어렵지가 않았다. 대학출신이 양산되고 있는데 취업의 기회는 적었다. 그러나 그때 그 인력이 우리를 현재의 경제위치에 올려놓겨준 계기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기술인력은 많이 배출하면 언젠가는 활용할 기회가 있다는 이론인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소방기술은 상업성에 밀려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소방을 바로 잡는데 이들 기술자가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 기술자격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자격자 배출에 수요 공급을 수요처인 내무부등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손발이 맞는 정책이 될 것 같다.

## 行政 爲主의 消防 政策

70년대에들어와 정부차원에서 소방을 심각하

게 생각한때가 몇번 있었던 것 같다. 대연각, 시민회관 화재로 건축법, 소방법이 강화되고 한국 화재보험협회, 전기안전공사등 민간 방재기구가 생겨났다.

그러던중 이리역 화물열차 폭발물 사고가 났다. 정부는 형식에서 탈피 근본으로 문제를 풀기 해결하려 했던 것 같다. 사실 현재 방화제도는 크게 나무랄 것은 없다. 외국의 좋다는 기준이나 민간 기구도 만들만큼 만들어왔다. 그렇다면 문제는 근본적인 곳에 있다는 결론인 것 같았다. 그결과 행정위주의 소방을 소방본연의 과학기술개발로서 개선해보자는 것이었다. 소방학교 김정공사, 각방화기술민간단체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주역들이 되어야 할텐데 정작 이들을 지휘 감독하는 내무부는 관심있는 사람에게 계속 낮잠만 자고 있는 모습으로만 보였다.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발동을 걸어야 하는 역할은 내무부가 말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데도 내무부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것 같다.

예를들면 외국에는 소방정책을 다루는 부서에는 이공학 박사정도의 전문가가 상당 수 있고 국가에서도 전문기술직을 별도로 양성하여 항상 정책입안에 행정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현재 내무부에는 이러한 전문기술직이 없는채로 소방을 운전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방은 그 시초부터가 기구한 운명을 겪었다. 8.15해방후 경찰에서 담당하여 오다가 자유당및 5.16초에 경찰에서 독립하였다. 현재는 민방위본부 아래 소방국이 최고 정부 부서이다. 따라서 소방간부는 경찰 출신이거나,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과 같이 전문 기술인이 채용되어 행정위주 일변도를 제도적이라도 막을 필요가 절실한 것 같다.

이에 덧붙여서 수천 소방관의 프로모션의 길도 터주기 위해서라도 소방전문기술을 가진 공무하는 공무원을 높은 직위에 오를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는 등 소방정책이나 행정을 차원높게 다루는 기술도 개발하는 것이 위와 아래를 일체로 조합하는 길일 것이다.

## 고마운 消防

불이 났을 때 생명을 걸고 불을 끄고 불속에 뛰어들어 어린이를 구출해내는 소방관은 훌륭한 기보다 숭고한 표상이다. 이런일 말고도 소방이 할 수 있는 고마운일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적으로 높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사망자의 대부분이 심장마비 호흡장애등으로 사고 후에 응급조치가 늦은 것이라고 한다. 이들을 현장에서 급히 구하기 위하여 도시나 고속도로를 누비는 광경은 고마운 것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단 교통사고 뿐이 아니다. 감전사고, 붕괴사고등 각종 안전사고에서 신속한 신고체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인명을 구하는 일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또 있다. 불이난 현장이 얼마나 지저분한가, 겨울이라도 되면 검은 고드름에 걸전체가 미끄럽다. 폐허가 된 화재현장은 많은 일손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치워준다면 불난사람의 슬픔을 많이 덜어주는 고마운 일이 될 것이다.

기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고마운일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애완동물찾아주기 막힌 하수도 뚫기 소년스포츠팀관등까지 소방이 맡고 있는 정도이다.

소방이란 용어가 낮추어지지 않는 업무를 찾는데 때늦은 감이있다.

## 科學消防

88올림픽전에는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여기저기서 야단들이다.

소방법을 개정한다고 하루 아침에 소방이 달

하기 쉬운 위치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로, 혹은 정전이나 화재, 또는 절전을 목적으로 주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작동이 불가능 하게 된다.

라지지 않는 것처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습관 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소방에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장기적으로 하여 1년만 내다보는 소방계획 수립 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미국 뉴욕은 1968년 뉴욕 소방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3年間 랜드연구소(Rand cooperation)와 합동으로 연구하여 오늘날 세계 첨단의 소방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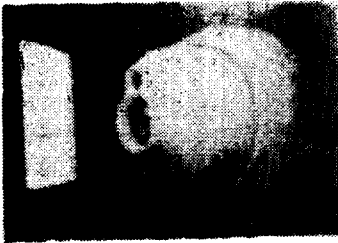
이 연구는 通信, 部隊運用, 情報管理, 指令裝置와 새로운 技術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결과와

시행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더욱 큰 성과를 올린것은 소방을 일류대학출신 젊은 학자들이 많이 참여 다루므로써 그들의 명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소방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모두가 우리에게서 꿈같은 이야기이지만을 립 꾀에 대비하여 지금쯤 소방도 동면에서 깨어나 과학화에 계기를 마련 해야겠고 그중에서도 소방신고등에 따른 출동의 효율화를 기함은 물론 다각적인 소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소방체제를 EDPS化하는 시도를 하는 것도 지금쯤 착수해야 겨우 86년쯤 체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

〈新製品〉

### 「光學的 煙氣探知機」



Chubb Fire社에서 開發한 光學的 煙氣探知機로서 信賴度 및 感度는 종래의 것과 비슷하지만 設置와 整備가

훨씬 용이하다. 이 장치는 外部전선중단부를 포함하는 Plate-assembly와 적외선 송수신기로서 構成되어 있다. 연기에 의하여 빛의 세기가 50%이상

減小될때까지 作動되며 렌즈에 먼지가 쌓여 잘못된 警報가 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빛의 세기가 10分간격으로 연속적으로 比較測定된다.

일시적으로 빛이 흐려져서 잘못된 警報를 발하지 않도록 감소된 빛의 세기는 적어도 15秒동안 계속해서 모니터 된다. 作動電源은 18~31.5Vdc이며 400M<sup>2</sup>까지의 넓이를 저버하며 作動溫度範圍는 -20°C~55°C이다.

製作會社 : Chubb Fire Security Ltd; Pyrene House, Sunbury-on-Thames,